

전북은행노조, 얼라인파트너스 합병 제안 반발

JB금융·BNK금융 합병 철회 촉구... “지역금융 공공성 훼손”·“지역사회·고객 의견 배제한 일방적 제안”

JB금융그룹 전북은행노동조합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얼라인파트너스의 JB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 간 합병 제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제안 철회를 촉구했다.

전북은행노동조합(위원장 정원호)은 성명을 내고 “지역금융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닌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라며 얼라인파트너스의 합병 제안을 “지역금융의 공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JB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 이사회에 양사 합병 검토를 요구하는 공개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설치와 글로벌 투자는행을 통한 타당성 검토를 오는 8월 7일까지 결정하고, 3분기 실적 발표 이전 실행 방안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은행노조는 “얼라인파트너스가 규모의 경제와 인공지능(AI) 전환 투자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



JB금융그룹 전북은행노동조합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얼라인파트너스의 JB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 간 합병 제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제안 철회를 촉구했다.

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단기 주가 상승과 투자금 회수를 위한 금융자본의 논리”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방은행은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을 지역경제에 재투자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라고 강

조했다. 또한 호남과 영남은 산업 구조와 경제 여건, 금융 수요가 서로 다른 만큼 영업권이 겹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합병을 시장 중심의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지역 현실을 외면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합병으로 기대하는 비용 절

감과 AI 투자 효율화 역시 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 지역 점포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금융 소비자들에게 떠안겨 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독립이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외부 컨설팅 등 절차만 강조한 채 지역사회와 고객,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배제하고 있다며 합병 검토 요구를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JB금융지주 이사회에도 “지역과 고객, 직원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병 제안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원호 전북은행노동조합 위원장은 “JB금융그룹의 주인은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일부 투자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고객, 그리고 현장을 지켜온 직원들”이라며 “전북은행의 정체성과 지역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빅데이터 기반 전북 미래 해법 모색

한국은행 전북본부, 지역경제 세미나 개최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전북지역이 직면한 청년층 인구 유출과 산업구조 전환,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과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경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경욱)는 지난 16일 전북 인공지능·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와 공동으로 '2026년 지역경제 세미나'를 열고, '지역경제 주요 이슈 및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주제로 지역경제 현안을 진단

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빅데이터와 실증분석을 활용해 전북지역의 주요 경제 현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모두 3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조현배 한국은행 전북본부 과장은 '전북지역 청년층 인구 유출입 현상 및 과제'를 발표하며 청년 인구 이동의 특징과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박현준 한국은행 전북본부 과장은 '지역 산업구조와 경제성장 간 관계 분석'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했다. 김태훈 경희대학교 교수는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고령화 시대 지방재정의 과제와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청년층 유출과 급속한 고령화, 산업구조 고착화가 상호 영향을 주며 전북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비롯한 행정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이 지역경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상근 기자

농촌진흥청, 기후변화 대응 인삼 신품종 종자 생산 현장 점검

농촌진흥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삼 신품종의 안정적인 종자 생산과 보급 확대를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은 지난 15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의 인삼 종자 생산 농가를 방문해 자체 개발한 기후변화 대응형 인삼 품종 '천량'과 '고원'의 종자 생산 현황을 살펴보고 농업인들과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상기후에 강한 신품종의 안정적인 종자 생산 체계를 점검하고, 우수 품종의 현장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량'은 기존 품종인 '천풍'보다 생산량이 약 10% 많고 염류와 고온에 강한 특성을 지녀 기후변화 대응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원'은 인삼 지상부 병해 가운데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점무늬병에 강한 저항성을 갖춘 품종이다.

이날 김 원장은 종자 생산 농가를 둘러보며 올봄 이상고온에 따른 조기 발아 현상과 최근 이어진 폭우·폭염으로 단위면적당 종자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농업인들은 인삼은 재배 기간이 길어 품종 선택에 따라 수년 뒤 생산성이 좌우되는 만큼 기후변화에 강한 신품종을 보다 신속하게 현장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오상근 기자

귀금속 전문장비 활용 본격화

전북테크노파크, 익산 주얼리기업 제품개발·사업화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자인센터가 익산지역 주얼리기업의 제품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성과형 장비 활용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 전북디자인센터(센터장 유종길)는 지난 16일 전북디자인센터에서 '2026년 주얼리기업 성과형 장비 활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익산지역 주얼리기업이 보유한 제품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과 시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전북디자인센터가 운영 중인 귀금속 제조 전문장비 활용과 제품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한 장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업별 제품개발 계획과 목표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과정을 관리하며,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성과 중심의

지원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날 평가위원회는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사업에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역량과 제품개발 계획의 구체성, 장비 활용 계획의 적정성, 사업화 가능성, 추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전북디자인센터는 평가 결과와 내부 절차를 거쳐 지원기업을 최종 선정할 뒤 오는 11월까지 기업별 제품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3D프린터를 비롯해 주조 및 후가공 장비 등 귀금속 제조 전문장비 활용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중간점검과 기술 컨설팅도 함께 제공해 제품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사업 종료 후에는 기업별 개발 결과물과 장비 활용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제품 전시와 홍보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판로 확대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환경청, 순환자원 인정 제도 설명회 22일 개최

전북지방환경청이 전북지역 사업장의 폐기물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순환자원 인정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직무대리 김경록)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청사 2층 대강당에서 관내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시설을 136개소를 대상으로 '순환자원 인정 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유해성이 낮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경우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폐기물 보관기간 준수 등 각종 의무가 면제되며, 배출자가 순환자원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고시 제도 전반에 대한 실무 중심의 정보가 제공된다. 주요 내용은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고시 제도의 개요와 혜택, 인정 신청 절차와 평가 방법, 순환자원 지정·고시 정보시스템 등록 방법 등이다.

특히 제도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전북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1대1 맞춤형 현장 컨설팅도 함께 운영된다.

현장에서 컨설팅 신청을 접수하며, 신청 기업에는 전문가가 신청 서류 작성과 행정 절차를 지원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제도 활용을 돕는 밀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물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8월 7일까지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물류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풀필먼트 서비스와 부산항만공사가 운영하는 해외 물류센터의 현지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업이 민간 물류사를 통해 상품 보관과 포장, 출고, 배송, 반품 등 주문 이행 전 과정을 대행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요 비용의 최대 70%를 기업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부산항만공사가 운영하는 해외 물류센터를 활용해 제품을 보관하거나 현지 배송 등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소요 비용의 최대 70%, 기업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